

## 『傷寒論』脾約證의 의미에 대한 小考

- 179조와 247조의 비교를 중심으로 -

<sup>1</sup>慶熙大學校 一般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 · <sup>2</sup>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安鎮燾<sup>1, 2</sup> · 丁彰炫<sup>2</sup> · 張祐彰<sup>2</sup> · 白裕相<sup>2</sup> \*

### A Study on the Meaning of Splenic Constipation Syndrome(脾約證) in *Shanghanlun*(傷寒論)

- By Comparing 179 & 247 Provisions -

Ahn Jin-hee<sup>1, 2</sup> · Jeong Chang-hyun<sup>2</sup> · Jang Woo-chang<sup>2</sup> · Baik You-sang<sup>2</sup> \*

<sup>1</sup>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sup>2</sup>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plenic constipation syndrome(脾約證) in *Shanghanlun* by comparing 179 & 247 provisions.

**Methods** : Including *Shanghanlun*, several texts which contain Cheng Wu-ji, Wan Mi-zhai, Qian Huang, Zhu Gong, Fang You-zhi, Yu Jia-yan, Zhang Lu, Cheng Ying-mao, Zhang Xi-ju, Chen Xiu-yuan, Wu Qian, Xu Ling-tai, You Zai-jing, Zhu Dan-xi's opinion about the splenic constipation syndrome were chosen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 was carried out.

**Results & Conclusions** :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drawn.

247 provisions in *Shanghanlun* is different from 179 provisions because the beginning of the each splenic constipation syndrome is different. The difference between 179 & 247 provisions are proved by comparing Mild Purgative Decoction which is used Taiyangyangming splenic constipation syndrome and Fructus Cannabis Pill which is used Dorsal pedal pulse splenic constipation syndrome. Cheng Wu-ji's opinion that 179 & 247 provisions is different is meaningful because he is first investigated the different beginning of the splenic constipation syndrome. Several annotator's opinion which oppose Cheng Wu-ji is majority and they set a high value on Jangbu(臟腑) factor. Several annotator's opinion which agree Cheng Wu-ji is minority and they set a high value on splenic constipation syndrome also begins from Taiyangbing. The concept of overlapping of Taiyangyangming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Taiyangyangming. Consequently 179 & 247 provisions has to be distinguished.

**Key Words** : *Shanghanlun*(傷寒論), Taiyangyangming(太陽陽明), Splenic Constipation(脾約), Fructus Cannabis Pill(麻子仁丸)

## I. 序 論

『傷寒論』은 韓醫學의 가장 기초적인 경전 중 하나에 속하지만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다. 『傷寒論』의 내용 중에서 五臟의 개념을 바탕으로 명명한 병증 가운데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못한 것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脾約證은 역대 주가들의 해석이 분분한 병증 중 하나이다. 또한 『傷寒論』 ‘辨陽明病脈證并治’의 冒頭조문인 179조에서 張仲景이 陽明을 太陽陽明, 正陽陽明, 少陽陽明으로 나눈 뒤, 太陽陽明을 ‘脾約’이라고 한 것과 247조에서 趺陽脈을 云云하며 ‘其脾爲約’하다고 한 것이 같은 脾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대다수의 주가들이 두 조문을 같은 개념의 脾約으로 보았으나, 成無己와 萬密齋는 두 조문을 다르게 보았고, 錢潢은 두 조문 사이의 포함관계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었다. 劉麗軍은 麻子仁丸證이 脾約의 유일한 證治가 아님을 강조하였고, 脾約證과 麻子仁丸證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였다<sup>1)</sup>. 肖相如는 脾約은 太陽陽明이지 麻子仁丸證은 아니라고 하였다<sup>2)</sup>. 두 논문 모두 179조와 247조가 동일하지 않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논문이다. 그러나 두 논문 모두 179조와 247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脾約의 개념, 『傷寒論』 179조와 247조 脾約 관련 내용의 비교, 脾約證의 발단과 전변 등의 내용을 논의해 보면서 해석이 엇갈리는 脾約證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 II. 本 論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26, Email : baikys@khu.ac.kr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Received(27 April 2015), Revised(12 May 2015),  
Accepted(14 May 2015).

- 1) 劉麗軍. 脾約與麻子仁丸證治辨析. 陝西中醫學院學報. 2011. 34(2). pp.69-70.
- 2) 肖相如. 脾約不是麻子仁丸證. 河南中醫. 2009. 29(11). pp.1044-1045.

### 1. 脾約의 概念

『傷寒論』에서 ‘脾約’ 관련 내용은 총 두 번 나온다. 한 번은 『傷寒論』 ‘辨陽明病脈證并治’의 冒頭인 179조에 나오고, 또 한 번은 ‘辨陽明病脈證并治’의 후반부인 247조에 ‘其脾爲約’이라는 표현으로 나온다. 179조 조문은 다음과 같다.

[179조문] 問曰病有太陽陽明, 有正陽陽明, 有少陽陽明, 何謂也. 答曰太陽陽明者, 脾約<sup>3)</sup>一云絡是也. 正陽陽明者, 胃家實是也. 少陽陽明者, 發汗、利小便已, 胃中燥煩實, 大便難是也.<sup>4)</sup>

보통 『傷寒論』의 ‘脈證并治’ 冒頭에서는 ‘~之爲病’으로 시작하여 전체적인 강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陽明病에서는 ‘陽明之爲病’으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陽明을 太陽陽明, 正陽陽明, 少陽陽明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sup>5)</sup>. 『傷寒論』의 全體에서 ‘脾約’이라고 한 곳은 179조 한 곳이나, ‘脾約’과 비슷하게 ‘其脾爲約’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으니, 바로 247조이다. 247조 조문은 다음과 같다.

[247조문] 趺陽脈浮而濇, 浮則胃氣強, 濇則小便數, 浮濇相搏, 大便則硬, 其脾爲約, 麻子仁丸主之.<sup>6)</sup>

247조에서는 胃氣의 盛衰를 진단할 수 있는 趺陽脈을 云云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趺陽脈을 진단했더니 浮하면서도 동시에 濇한 脈狀이 나타나니, 浮한 脈狀은 胃氣의 強盛함이 반영된 것이고, 濇한 脈狀은 小便을 자주 보는 정황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3) 『傷寒論』의 또 하나의 古傳本인 『金匱玉函經』에는 ‘脾約’과 ‘是也’ 사이에 ‘一作脾結’이 덧붙여져 있다.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78.

4) 文潸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p.375. 참고로 『傷寒論』의 조문 번호는 『傷寒論精解』의 순서를 따랐다.

5) 『傷寒論』의 또 하나의 古傳本인 『金匱玉函經』에는 ‘陽明之爲病, 胃家實是也’가 ‘辨陽明病形證治’의 冒頭に 三陽陽明 설명보다 먼저 나오고, ‘少陽陽明’은 ‘微陽陽明’으로 되어 있다.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78.

6) 文潸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p.492.

浮瀯의 脈狀이 서로 맞부딪히듯이 동시에 나타나면 (相搏) 大便은 곧 단단해지고 그 脾는 約해지는 데 麻子仁丸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179조에서는 太陽陽明이 脾約이라고만 명명하고, 脾約의 구체적인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나, 247조에서는 脾胃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趺陽脈 진단을 통해 小便數하고 大便硬한 상태를 ‘其脾爲約’이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만약 247조의 내용이 179조에서 말한 脾約의 내용과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脾約의 개념은 陽明病의 일종으로, 津液상태의 異常으로 나타나는 大小便失調 症狀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2. 『傷寒論』 179조와 247조 脾約 관련 내용의 비교

### 1) 두 조문이 다르다는 成無己의 견해

#### (1) 『傷寒論』 조문 중심의 견해

앞의 脾約의 概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9조에 나오는 ‘脾約’과 247조에 나오는 ‘其脾爲約’이 同等 개념의 脾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傷寒論』 179조 조문에 나오는 ‘脾約’의 내용과 247조 조문에 나오는 ‘其脾爲約’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자 한다. 첫 번째로 179조 조문의 “太陽陽明者, 脾約是也.”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仲景은 “太陽陽明이 脾約이다.”라고만 크게 정의를 내렸을 뿐 太陽陽明이 어떤 경로를 거쳐 발생하게 되는 병증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太陽陽明과 正陽陽明 뒤에 仲景이 언급한 少陽陽明의 내용을 실마리로 삼아 太陽陽明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발생하게 된 病證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즉 仲景이 “少陽陽明者, 發汗利小便已, 胃中燥煩實, 大便難是也.”라고 한 것의 원뜻을 추측해보면 少陽으로부터 病證이 출발하여 陽明으로 傳變된 것을 少陽陽明이라 稱한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少陽病일 때는 發汗法이나 利小便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오치를 사용하여 津액의 亡失을 가져와 胃中燥煩實하고 大便難한 陽明病證을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太陽陽明도 少陽陽明의 예를 토대로 그 病機를 추측해보면 太陽病의

상태에서 오치를 加하여 津액의 亡失이 일어나고 이로 因하여 太陽病에서 陽明病으로의 傳變이 일어나 小便數하고 大便硬한 大小便失調 증상을 초래하는 병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成無己는 다음과 같이 注解하였다.

[原文] 陽明, 胃也. 邪自太陽經傳之入府者, 謂之太陽陽明. 經曰, 太陽病, 若吐若下若發汗後, 微煩, 小便數, 大便因硬者, 與小承氣湯, 卽是太陽陽明脾約病也.<sup>7)</sup>

成無己는 仲景의 “太陽陽明은 脾約이 이것이다.”라는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 『傷寒論』 250조에 나오는 小承氣湯을 예시로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成無己의 小承氣湯 예시는 적절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太陽病이 들었을 때에 汗吐下 三法の 치료법을 써서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고 도리어 津액의 손실만을 가져와 太陽表證은 罷하고 微煩·小便數·大便硬하는 陽明病證이 出現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太陽陽明脾約’이 어떤 病證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成無己가 ‘太陽陽明脾約病’이라고 命名한 179조의 脾約證은 앞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太陽病이 들었을 때 汗吐下 三法과 같은 治療法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太陽病이 치료되지 않고 도리어 津액의 亡失만을 초래하여 太陽病證이 罷함과 동시에 陽明府證으로의 傳變이 일어나는 病證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한편 ‘辨陽明病脈證并治’ 후반부에 해당하는 247조에서는 胃氣의 盛衰를 진단할 수 있는 趺陽脈을 云云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成無己는 다음과 같이 注解하였다.

[原文] 趺陽者, 脾胃之脈, 診浮爲陽, 知胃氣強, 澀爲陰, 知脾爲約. 約者, 儉約之約, 又約束之約. 『內經』曰飲入于胃, 游溢精氣, 上輸于脾, 脾氣散精, 上歸于肺, 通調水道, 下輸于膀胱, 水精四布, 五經并行, 是

7)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03.

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今胃強脾弱，約束津液，不得四布，但輸膀胱，致小便數，大便難，與脾約丸，通腸潤燥。<sup>8)</sup>

成無己는 趺陽脈에 나타난 浮脈은 陽脈으로써 胃氣의 強함을 인지할 수 있고, 澹脈(滯脈)은 陰脈으로써 脾가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뒤이어 『素問·經脈別論』을 인용하여 胃에서 받아들인 飮이 脾의 작용을 통해 몸 구석구석으로 어떻게 퍼지는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脾가 胃를 위해 津液을 行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脾約의 상태는 胃는 強한 반면 脾는 弱하여 津液을 사방으로 퍼뜨리지 못하고 단지 膀胱쪽으로만 이동시켜 小便數과 大便難의 증후가 발생하므로 脾約丸(麻子仁丸)을 주어 通腸潤燥시켜야 한다고 했다. 成無己는 179조의 脾約을 ‘太陽陽明脾約病’이라고 칭하고, 247조에서는 ‘其脾爲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 ‘太陽陽明脾約’이라고 하지 않고 ‘胃強脾弱’이라는 病機로 247조 조문을 註解하였다. 이는 成無己가 179조와 247조를 약간 서로 다른 脾約證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成無己는 이른바 247조의 ‘趺陽脈脾約證’<sup>9)</sup>의 病機를 ‘胃強脾弱’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는 臟腑論적인 素因이 ‘趺陽脈脾約證’의 원인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趺陽脈脾約證’은 小便數과 大便硬의 증후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太陽陽明脾約證’처럼 太陽病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247조에 나오는 소위 ‘趺陽脈脾約證’의 증후 중에 만약 小便數이 太陽病에 속하는 증후라고 가정한다면 小便數을 거쳐 大便硬이 나타나는 ‘趺陽脈脾約證’을 太陽病의 과정을 지나 陽明病으로 傳變한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과 흡사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傷寒論』에서 小便數과 관련된 조문을 모두 뽑아서 小便數이 太陽病의 증후

인지 陽明病의 증후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다음은 『傷寒論』에 나오는 小便數과 관련된 조문이다.

[29조문] 傷寒，脈浮，自汗出，小便數，心煩，微惡寒，脚攣急，反與桂枝湯欲攻其表，此誤也。得之便厥，咽中乾，煩躁吐逆者，作甘草乾薑湯與之，以復其陽。若厥愈足溫者，更作芍藥甘草湯與之，其脚即伸。若胃氣不和，譫語者，少與調胃承氣湯。若重發汗，復加燒針者，四逆湯主之。<sup>10)</sup>

위의 조문에 나타난 小便數은 傷寒 初期 太陽病 表證 단계에서 脈浮，自汗出，微惡寒，心煩，脚攣急한 증상과 함께 나타나므로 太陽病의 증후라고 관정 내릴 수 있다.

[110조문] 太陽病二日，反躁，凡熨其背，而大出汗，大熱入胃，胃中水竭，躁煩，必發譫語，十餘日振慄自下利者，此爲欲解也。故其汗從腰以下不得汗，欲小便不得，反嘔，欲失溲，足下惡風，大便硬，小便當數，而反不數及不多，大便已，頭卓然而痛，其人足心必熱，穀氣下流故也。<sup>11)</sup>

위의 조문은 太陽病 오치로 인하여 陽明病으로의 傳變이 일어난 것으로 ‘小便當數’을 小便數으로 놓고 본다면 陽明病의 증후라고 할 수 있다. 110번 조문의 실제 내용은 小便不數한 증후가 나타나지만, 陽明病의 일반적 경향성을 논하기 위해 小便當數을 小便數으로 대치해 놓고 분석하였다<sup>12)</sup>.

[244조문] 太陽病，寸緩關浮尺弱，其人發熱汗出，

8) 成無己. 註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13.

9) 앞으로 247조에 나오는 ‘其脾爲約’을 ‘趺陽脈脾約證’이라고稱하기로 하고, 대비하여 179조는 ‘太陽陽明脾約證’이라고稱하기로 한다.

10) 文濬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社. 1998. p.104.

11) 文濬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社. 1998. p.247.

12) ‘小便當數’을 ‘小便數’으로 대치해 놓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傷寒論』 203條 조문에서 小便을 보는 熨수를 問診하여 小便을 보는 熨수가 줄어들었을 경우 大便이 장차 나오리라는 것을 추측하였는데, 이로써 보건대 大便과 小便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고, 『傷寒論』 244條 조문에서 ‘小便數者，大便必硬’이라고 하였으므로, ‘小便當數’을 ‘小便數’으로 대치해 놓고 분석하였다.

復惡寒，不嘔，但心下痞者，此以醫下之也。如其不下者，病人不惡寒而渴者，此轉屬陽明也。小便數者，大便必硬，不更衣十日，無所苦也。渴欲飲水，少少與之，但以法救之，渴者宜五苓散。<sup>13)</sup>

위의 조문에 나타난 小便數은 陽明으로 轉屬된 뒤에 나타나는 小便數이므로 陽明病의 증후라고 할 수 있다.

[250條 조문] 太陽病，若吐若下若發汗後，微煩，小便數，大便因硬者，與小承氣湯和之愈。<sup>14)</sup>

위의 조문에 나타나는 小便數은 太陽病이 들었을 때 汗吐下 三法을 써서 津액이 亡失되어 陽明病으로 傳變되어 나타나는 小便數으로 陽明病의 증후라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傷寒論』에 나오는 小便數과 관련된 조문을 살펴본 결과,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陽明病에 속하는 증후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大便硬과의 연관성 속에서 생각할 때는 陽明病의 증후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247조에 나오는 小便數은 그 증후가 太陽病보다는 陽明病의 증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앞부분에서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과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이 같은 脾約證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小便數의 증후가 太陽病 증후에 가깝다면 太陽病에서 陽明病으로 넘어가는 ‘太陽陽明脾約證’과 관련성이 높을 것이고, 小便數의 증후가 陽明病 증후에 가깝다면 ‘太陽陽明脾約證’과의 관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했다. 『傷寒論』 전체에 나오는 小便數 관련 조문을 살펴본 결과, 小便數은 陽明病 증후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247조에 나오는 ‘趺陽脈脾約證’은 179조에 나오는 ‘太陽陽明脾約證’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의 내용은 雜病 위주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金匱要略』內 「五臟風寒

積聚病脈證并治」에 ‘大便則硬’이 ‘大便則堅’으로만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같게 나온다<sup>15)</sup>. 이로 볼 때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은 病的 發端이 外感風寒이 아니라 臟腑論의인 素因을 어느 정도 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2) 처방 중심의 견해

앞에서 『傷寒論』 179조와 247조의 조문을 중심으로 두 조문이 같은 脾約證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與否를 분석해 본 결과, 두 조문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成無己의 註解에 나타난 ‘太陽陽明脾約證’을 치료하는 小承氣湯 處方과 ‘趺陽脈脾約證’을 치료하는 麻子仁丸 處方を 중심으로 두 조문의 脾約證이 같은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注解傷寒論』에서 成無己는 『傷寒論』 179번 조문에서 太陽陽明이 脾約이라고 한 仲景의 뜻에 대하여 太陽病이 들었을 때 汗吐下 三法을 써서 陽明病으로 傳變되는 小承氣湯의 예를 제시하였다. 成無己가 만약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과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을 같은 脾約證으로 인식했다면 179조에 대해 註를 달 때 247조의 ‘麻子仁丸’ 처방을 인용했을 텐데, 도리어 247조를 인용하지 않고 250조에 나오는 ‘小承氣湯’ 처방을 예로 들어 인용한 것은 成無己가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이 247조의 ‘趺陽脈脾約證’과 차이가 있다고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成無己는 247조에 나오는 ‘其脾爲約’에 대하여 ‘胃強脾弱’하므로 津액을 約束하여 四方으로 퍼뜨릴 수 없고 다만 膀胱으로만 津액을 이동시켜 小便數과 大便難의 증후가 발생하기 때문에 脾約丸을 주어 通腸潤燥시킨다고 했고, 太陽病이 들었을 때 汗吐下 三法의 오치로 인하여 微煩, 小便數, 大便因硬할 때는 小承氣湯을 쓸 수 있다고 했다. 趺陽脈脾約證에서는 小便數·大便硬의 증후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비하여 太陽陽明脾約證에서는 微煩의 증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大黃·厚朴·枳實로 구성

13) 文濬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p.487.

14) 文濬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p.495.

15)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15. “趺陽脈浮而濇, 浮則胃氣強, 濇則小便數, 浮濇相搏, 大便則堅硬, 其脾爲約, 麻子仁丸主之”

되어 微和胃氣시키며 瀉熱通便시키는 小承氣湯으로 다스렸다. 또한 小承氣湯은 大承氣湯에서 芒硝가 제거되고 厚朴이나 枳實은 제거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成無己는 小熱이 조금 맺힌 사람에게는 小承氣湯을 주되, 熱이 크게 심하지 않으므로 大承氣湯에서 芒硝를 제거하였고, 대변의 정도가 結하여 堅한 지경에 이르르지 않았기 때문에 厚朴과 枳實을 덜어내지 않았다고 했다<sup>16)</sup>. 한편 胃強脾弱한 素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趺陽脈脾約證에는 甘平하여 滋潤할 수 있는 麻子仁을 君藥으로 하고, 甘溫하여 滋潤할 수 있는 杏仁을 臣藥으로 하며, 맺힌 것을 부수기 위해 苦味가 포함된 枳實과 厚朴을 佐藥으로 하고, 酸苦한 맛으로 湧泄시킬 수 있는 芍藥과 大黃을 使藥으로 삼아서 腸에 윤기가 돌게 하고, 맺혀있는 것을 풀어내며 津液이 胃中으로 還入되어 대변이 잘 통하게 되고 소변의 횡수가 적어져 나올 수 있는 麻子仁丸 처방을 사용하였다<sup>17)</sup>.

이로써 살펴보건대, 成無己는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에는 小便數과 大便硬의 증후 외에 煩症이 더해지므로 大黃·厚朴·枳實로 구성되어 微和胃氣하고 瀉熱通便시킬 수 있는 小承氣湯 처방이 적합하다고 보았고,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은 ‘胃強脾弱’이라는 臟腑論적인 소인으로 인하여 小便數과 大便硬의 증후가 나타나므로 補脾通腸潤燥할 수 있는 麻子仁丸 처방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 2) 成無己의 주장을 둘러싼 여러 주석가들의 견해

### (1) 두 조문이 동일하다는 견해

成無己가 仲景이 말한 179조의 ‘脾約’과 247조의 ‘其脾爲約’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한 후에 후

세의 『傷寒論』 註家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成無己를 前後로 成無己의 견해와 다르게 본 註家들이 있는데, 이들은 두 조문이 동일하다고 여겨서 179조와 247조를 서로 연결지어 설명하려고 하였다. 179조와 247조가 동일한 脾約證임을 말한 주요 『傷寒論』 註家들은 朱肱, 方有執, 喻嘉言, 張璐, 程應旆, 張錫駒, 吳謙, 徐靈胎, 陳修園, 尤在涇 등이 있다. 이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朱肱은 『增注類證活人書·問傷寒二三日身熱目疼鼻乾不得臥尺寸脈俱長』에서 脾約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太陽陽明의 注에서 “太陽陽明이 脾約이며, 大便堅小便利하면 其脾爲約하다.”<sup>18)</sup>고 했고, 趺陽脈의 注에서 “千金에서는 脾約이 大便堅小便利하므로 마땅히 枳實丸을 써야 하며, 太陽陽明이 脾約이라는 것이 곧 이것이다.”<sup>19)</sup>라고 명시하여 두 조문을 같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方有執은 『傷寒論條辨·辨陽明病脈證并治』의 179조 조문을 주석하면서 “太陽陽明은 太陽이 病을 받아 지름길로 胃로 들어가 胃實을 이루는 것이다. 脾約은 61조에 보인다. 여기서는 큰 뜻을 거론하였고, 脾約의 상세함은 뒤(247조)에 보인다.”<sup>20)</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두 조문을 같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喻嘉言은 『尙論篇·陽明經下篇·論太陽陽明少陽陽明原有可下之證』에서 太陽陽明에 대해 註를 달 때, “太陽陽明은 脾約이 이것이다. …중략…상세한 것은 門人이 脾約을 묻는 것에 答하는 論에 있다.”<sup>21)</sup>고 했고, “脾約의 症은 곧 外감의 사기를 앓기 전에 그 사람이 평상시 脾約에 익숙하여 3~5일에 한차례 정

16) 成無己. 傷寒明理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07. “小熱微結者, 與小承氣湯. 以熱不大甚, 故于大承氣湯去芒硝. 又以結不至堅, 故不減厚朴枳實也.”

17) 成無己. 傷寒明理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91. “麻仁味甘平, 杏仁味甘溫. 內經曰脾欲緩, 急食甘以緩之. 麻仁杏仁, 潤物也. 本草曰潤可去枯, 脾胃乾燥, 必以甘潤之物爲之主, 是以麻仁爲君, 杏仁爲臣. 枳實味苦寒, 厚朴味苦溫, 潤燥者必以甘, 甘以潤之. 破結者必以苦, 苦以泄之. 枳實厚朴爲佐, 以散脾之結約. 芍藥味酸微寒, 大黃味苦寒, 酸苦湧泄爲陰, 芍藥大黃爲使, 以下脾之結燥. 腸潤結化, 津液還入胃中則大便利, 小便少而愈矣.”

18) 朱肱 撰.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72. “太陽陽明, 脾約是也. 大便堅小便利, 其脾爲約.”

19) 朱肱 撰.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 112. “千金云脾約者, 大便堅小便利. 宜枳實丸. 太陽陽明者, 脾約乃是也.”

20) 方有執. 傷寒論條辨(欽定四庫全書 4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57. “太陽陽明者, 謂太陽受病徑入胃而成胃實也. 脾約見第六十一條. 此舉大意, 詳見後.”

21) 喻嘉言. 尙論篇(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4. “太陽陽明者, 脾約是也. …중략…詳後答門人問脾約論”.

도만 대변을 보던 자가 風寒의 邪氣를 감수함에 이르러 곧 사기가 아직 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위가 이미 먼저 실해져 사기가 陽明에 이르르면 胃의 不實함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사기를 받드는 津액이 없어서 마르게 됨을 걱정한다. 仲景은 太陽禁下의 예를 크게 변경시켜 麻仁丸이라는 하나의 법을 따로 세워 潤下시키니 일시적으로 잠시 맺힌자에게 탕약을 써서 탕척할 수 있는데 비할 수 없을 뿐이다.”<sup>22)</sup>라고 했는데, 이로써 麻子仁丸 처방을 사용하는 247조와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을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喻嘉言은 또한 成無己가 247조의 조문 病機를 胃強脾弱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喻嘉言은 脾約의 約을 省約으로 보아 3-5일 동안의 胃中의 水穀이 1-2개의 彈丸모양으로 縮約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았으며, 脾約을 脾病으로 파악하기는 하되 脾弱이 아닌 脾氣過強이나 脾土過燥로 파악하였다. 喻嘉言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成無己의 ‘胃強脾弱’ 논리를 반박했으며, 脾弱이 아니라 오히려 脾強이라고 주장하였다. 첫째, 脾約을 다스리는 麻仁丸 處方 構成에 大黃, 枳實, 厚朴이 補藥이 아님을 들어 脾弱이 成立되지 않음을 말하였다. 둘째, 仲景이 胃強은 말했으나, 脾弱은 원래 말하지 않았으며, 胃強이라는 것도 脾強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成無己의 脾弱 논리를 반박하였다. 셋째, 脾弱하면 便澀한데, 脾約의 症狀은 大便難하므로 脾弱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脾弱하면 胃中の 물과 穀食을 모두 묽어질 수 없는데, 脾約의 小便數과 大便難의 병리상태로 미루어 보았을 때, 물은 묽지 못하여 小便數하고, 穀食은 묽어두어 大便難하게 되는 등 脾가 선별적으로 묽어두는 일이 발생할 수 없음을 들어 成無己가 脾約이 곧 脾弱이라고 말한 논리를 반박하였다<sup>23)</sup>.

22) 喻嘉言. 尚論篇(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67-68. “脾約一症, 乃是未病外感之先, 其人素慣脾約, 三五日一次大便者, 乃至感受風寒, 即邪未入胃, 而胃已先實, 所以邪至陽明, 不患胃之不實, 但患無津液以奉其邪, 立至枯槁耳. 仲景大變太陽禁下之例, 而另立麻仁丸一法以潤下之, 不比一時暫結者, 可用湯藥蕩滌之耳.”

23) 喻嘉言. 尚論篇(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7. “余曰脾弱即當補矣, 何爲麻子仁丸中, 反用大黃枳實厚朴乎. 子輩日聆師說, 而腹筭從前相仍之陋, 甚非所

張璐는 『傷寒續論·正方』 麻仁丸註에서 “趺陽脈은 浮하고 澀하다. …중략…, 以上은 太陽陽明腑證이다.”<sup>24)</sup>라고 했는데, 이로써 두 조문을 같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程應旄는 『傷寒論後條辨·辨陽明病脈證篇』 趺陽脈 조문의 註에서 “麻仁丸은 潤燥通幽시키는 처치법으로, 傷寒을 만났을 때는 大承氣湯을 함부로 쓸 수 없는데, 그 이유는 正陽陽明이 아니고 太陽陽明이다.”<sup>25)</sup>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두 조문을 같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張錫駒는 『傷寒論直解·辨陽明病脈證篇』 太陽陽明脾約조문의 註에서 “陽明은 二陽이다. 太少가 앞에 있고, 두 陽이 합하여 밝아지는 것을 陽明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太陽陽明과 少陽陽明과 正陽陽明의 病이 있다. 約은 窮約한 것이다.”<sup>26)</sup>라고 하고, 趺陽脈조문에서도 “津液이 적어져 脾가 행하는 바가 없으면 窮約해진다.”<sup>27)</sup>라고 하여 동일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두 조문을 같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陳修園도 『傷寒論淺注』에서 張錫駒의 주장과 비슷하게 太陽陽明脾約證을 설명할 때 “脾의 津액이

望也. 仲景說胃強, 原未說脾弱, 況其所謂胃強者, 正是因脾之強而強. 蓋約者, 省約也. 脾氣過強, 將三五日胃中所受之穀, 省約爲一二彈丸而出. 全是脾土過燥, 致令腸胃中之津液日漸乾枯, 所以大便爲難也. 設脾氣弱, 即當便澀矣. 豈有反難之理乎. 相傳謂脾弱, 不能約束胃中之水, 何以反能約束胃中之穀耶. 在陽明例中, 凡宜攻下者, 惟恐邪未入胃, 大便弗硬, 又恐初硬後澀, 不可妄攻, 若欲攻之, 先與小承氣, 試其轉失氣, 方可攻, 皆是慮夫脾氣之弱, 故爾躊躇也. 若夫脾約之症, 在太陽已即當下矣, 更何待陽明耶.”

24) 張璐. 傷寒續論(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3. “趺陽脈浮而澀, …중략… 趙以德云, 胃中陽熱亢甚, 脾無陰氣以和之, 孤陽無偶, 不至燔灼竭絕不止耳. 以上太陽陽明腑證.”

25) 程應旄. 傷寒論後條辨(續修四庫全書 986 子部·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432. “麻仁丸, 潤燥通幽爲處治則一遇傷寒其不能恣行大承氣可知矣. 所以然者, 以其爲太陽陽明非正陽陽明胃家實者, 比則推之.”

26) 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子部·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238. “陽明者, 二陽也. 太少在前, 兩陽合明, 謂之陽明, 故有太少正陽明之病也. 約, 窮約也.”

27) 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子部·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251. “津液鮮少, 脾無所行則爲窮約矣.”

타오름을 당하여 窮約해진 것이 이른바 脾約이 이것이다.”<sup>28)</sup>라고 했고, 趺陽脈脾約證에서도 “진액이 적으면 脾는 어쩔 수 없이 窮約해진다. 마인환으로 다스린다.”<sup>29)</sup>라고 하여 동일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두 조문을 갈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吳謙은 『醫宗金鑑·訂正傷寒論注』에서 趺陽脈脾約證을 설명하는 集注에서 程應旂의 注를 인용하여 “麻仁丸은 潤燥通幽시킨다. 傷寒에는 大承氣湯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太陽陽明이기 때문인데, 正陽陽明胃家實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sup>30)</sup>라고 하였으므로 두 조문을 갈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徐靈胎는 『傷寒類方』의 麻仁丸 처방 설명에서 “이것이 곧 論 중에서 말한바 太陽陽明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다. 麻仁丸으로 다스린다. 太陽이 바로 陽明으로 전해지고, 다시 再傳하지 않으므로 緩法으로 다스릴 수 있다.”<sup>31)</sup>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두 조문을 갈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尤在涇은 『傷寒貫珠集·陽明腑病證』의 太陽陽明 조문의 註에서 太陽陽明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 병증인지를 설명할 때 “그 사람의 胃陽이 평소 에 盛하고, 脾陰은 퍼지지 않으며, 대변은 작고 딱딱하여 脾約을 이룬다.”<sup>32)</sup>라고 하였고, 趺陽脈 조문의 註에서 “浮는 陽氣가 많은 것이고, 澀은 陰氣가 적은 것으로 趺陽脈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胃強하고 脾弱하기 때문이다.”<sup>33)</sup>라고 했는데, ‘胃陽素盛’

과 들어맞을 수 있는 ‘胃強’을 언급하였고, ‘脾陰不布’와 들어맞을 수 있는 ‘脾弱’을 언급했기에, 두 조문을 갈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두 조문이 다르거나 포함관계에 있다는 견해

成無己가 脾約의 발단이 太陽病에서 시작하는 ‘太陽陽明脾約證’과 胃強脾弱이라는 素因에서 시작하는 ‘趺陽脈脾約證’이 있다는 것으로 나누어 인식한 것처럼 두 조문이 다른 개념의 脾約證이라고 생각한 주요 『傷寒論』 註家들은 萬密齋와 錢潢이 있다. 萬密齋는 『傷寒摘錦』에서 ‘太陽陽明脾約證’과 ‘趺陽脈脾約證’을 다른 篇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萬密齋는 “만약 太陽經病이 陽明經으로 전해지지 않고 곧 陽明胃腑로 들어가면 이것이 太陽陽明인데, 證治는 아래에 보인다.”<sup>34)</sup>라고 하면서 181조, 248조, 250조를 예시로 들었다<sup>35)</sup>. 이로써 살펴건대 萬密齋는 太陽陽明脾約證과 趺陽脈脾約證을 서로 다른 脾約證으로 파악한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趺陽脈脾約證에 대한 논의는 『傷寒摘錦·陽明經禁忌不可犯』에 나오는데<sup>36)</sup>, 이것은 萬密齋가 麻仁丸처방을 陽明病이지만 下法을 쓸 수 없을 때 쓰는 潤下法의 처방으로 파악한 것으로, 太陽陽明脾約證의 예로 든 調胃承氣湯 및 小承氣湯의 攻下法 처방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萬密齋가 예시로 든 181조 내용을 살펴보면 成無己가 예시로 든 250조의 내용처럼 태양병이 든 상태에서 오치를 가하여 陽明

28) 陳修園. 傷寒論淺注(陳修園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423. “脾之津液爲其所燥而窮約. 所謂脾約是也.”

29) 陳修園. 傷寒論淺注(陳修園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434. “津液鮮少則其脾無可奈何爲窮約. 麻仁丸主之.”

30) 吳謙 編. 訂正傷寒論注(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32. “程應旂曰: 麻仁丸潤燥通幽, 傷寒不可恣行大承氣可知矣. 所以然者, 以其爲太陽陽明, 非正陽陽明胃家實者比也.”

31) 徐靈胎. 傷寒類方(徐靈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8. “此即論中所云: 太陽陽明者, 脾約是也. 麻仁丸主之. 太陽正傳陽明, 不復再傳, 故可以緩法治之.”

32) 尤在涇. 傷寒貫珠集(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9. “太陽陽明者, 病在太陽, 而兼陽明內實, 以其人胃陽素盛, 脾陰不布, 屎小而硬, 病成脾約.”

33) 尤在涇. 傷寒貫珠集(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1. “浮者陽氣多, 澀者陰氣少, 而趺陽見之, 是爲胃強而脾弱.”

34) 萬全. 傷寒摘錦(萬密齋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63. “如太陽經病不傳陽明經, 卽入陽明胃腑者, 此太陽陽明也. 證治見下.”

35) 萬全. 傷寒摘錦(萬密齋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63. “問曰, 何緣得陽明病. 答曰, 太陽病發汗, 若下, 若利小便, 此亡津液, 胃中乾燥, 因轉屬陽明. 不更衣, 內實, 大便難者, 此名陽明也. 此太陽之邪, 因汗下利小便, 轉入胃腑, 太陽陽明也. 太陽病三日, 發汗不解, 蒸蒸發熱者, 屬胃也, 調胃承氣湯主之. 太陽病, 若吐若下若發汗, 微煩, 小便數, 大便因硬者, 與小承氣湯和之愈. 此二條皆太陽陽明證治也.”

36) 萬全. 傷寒摘錦(萬密齋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69. “趺陽脈浮而澀, 浮則胃氣強, 澀則小便數, 浮澀相搏, 大便則難, 其脾爲約, 麻仁丸主之. 此上十條, 皆言不可下之禁也.”

胃腑로 전변되는 과정이 드러나는데, 247조에서는 그러한 情況이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錢潢은 太陽陽明脾約證과 趺陽脈脾約證이 대등하게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太陽陽明脾約證 안에 趺陽脈脾約證이 포함되는 포함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고, 기존의 註家들이 麻子仁丸 처방을 쓰는 趺陽脈脾約證만 脾約으로 여기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비약은 단지 아래 문장의 浮瀼相搏한 것만 바야흐로 脾約이라고 이르는 것은 아니다. 역대의 주가들은 다만 이 조문 중에 ‘其脾爲約’ 구절만 보고서 모두가 脾約으로 삼고 그 나머지에 이 구절이 없는 것은 마침내 깨닫지 못하였다. 무릇 太陽陽明證은 中風傷寒은 물론 誤吐시키고 誤汗시키고 誤下시키고 利小便시켜 胃中의 진액이 말라서 大便難하게 이르는 것을 모두 脾約이라고 하니 단지 마자인환 하나의 조문만이 아닐 뿐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sup>37)</sup>라고 하였다. 또 “仲景이 천하의 후세를 위해 범을 세운 것이 어찌 평소에 燥結한 사람들로 인하여 마침내 傷寒誤治의 太陽陽明脾約의 일례를 수립했겠는가. 모두 단지 浮瀼相搏하는 症만을 깨달아 脾約으로 여기고 오히려 篇을 통틀어 범을 세운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에 기인할 뿐이다.”<sup>38)</sup>라고 하였다. 錢潢은 181조, 245조, 250조, 244조, 208조 등 太陽病으로부터 비롯되어 陽明病으로 전변되는 조문의 예를 들었는데<sup>39)</sup>, 이는 成無己가 小承氣湯만을 예

시로 든 것과 萬密齋가 181조와 小承氣湯, 調胃承氣湯을 예시로 든 것보다 더 많은 예를 보여줌으로써 太陽陽明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脾約證의 발단과 전변

#### 1) 脾約證의 발단

179조에 나오는 ‘太陽陽明脾約證’은 그 病의 발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면 太陽病에서 그 病證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外感風寒의 邪氣를 감수함으로써 病證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成無己는 179조 註解에서 250조의 小承氣湯 조문을 예시로 들었다. 즉 太陽病이 들었을 때 汗吐下三法과 같은 治療法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太陽病이 치료되지 않고 도리어 진액의 亡失만을 초래하여 太陽病證이 罷함과 동시에 陽明府證으로의 傳變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는 太陽陽明脾約證의 발단이 臟腑論적 素因인 ‘胃強脾弱’이 아니고 太陽病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成無己의 뒤를 이어 萬密齋는 “예를 들면 太陽經病이 陽明經으로 傳하여지지 아니하고, 곧 陽明胃腑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太陽陽明이고, 證治는 아래에 보인다.”<sup>40)</sup>라고 하면서 “문기를 어떻게 해서 양명병을 얻게 되는가? 답하여 말하기를 태양병인데 발한시키거나 공하하거나 利小便法을 쓰게 되면 이에 진액을 망실하여 胃中이 건조해지고 因하여 양명으로 전속하게 되어 대변을 보지 못하게 되고 속이 실해져 대변을 보기가 어려운 데 이것을 양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태양의 사기

37) 錢潢,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987子部 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p.13-14. “所謂脾約者, 非但下文浮瀼相搏, 方謂之脾約也, 歷來注家, 但見此條中有其脾爲約句, 皆指以爲脾約, 其餘無此句者, 遂不曉矣. 不知凡太陽陽明證, 不論中風傷寒, 因誤吐誤汗誤下, 及利其小便, 致胃中津枯而大便難者, 皆謂之脾約, 非獨麻子仁丸一條而已也.”

38) 錢潢,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987子部 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19. “仲景爲天下後世立法, 安肯因平素燥結之人, 遂立傷寒誤治之太陽陽明脾約一例邪. 總因但曉浮瀼相搏之一症爲脾約, 猶未協通篇立法之旨耳.”

39) 錢潢,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987子部 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p.19. “是以太陽陽明篇首, 即有太陽入陽明之文曰, 太陽病, 發汗, 若下, 若利小便, 此亡津液, 胃中乾燥, 因轉屬陽明, 不更衣內實大便難者, 此名陽明病也. 又云脈微而汗出多者爲太過, 陽脈

實而發其汗, 汗出多者亦爲太過. 太過爲陽絕於裏, 亡津液, 大便因硬也. 又云, 太陽病, 若吐若下若發汗, 微煩, 小便數, 大便因硬者, 與小承氣湯和之愈. 又太陽病, 寸緩關浮尺弱, 其不下者, 病患不惡寒而渴者, 此轉屬陽明也. 小便數者, 大便必硬, 不更衣十日, 無所苦也. 又云其熱不潮者, 未可與承氣湯, 若腹大滿不通者, 可與小承氣湯微和胃氣, 勿令大泄下. 凡此諸證, 皆亡津液而大便難, 無大實熱之脾約證也. 所謂大便難, 非不大便也. 蓋欲出而堅澀不得出也, 其他雖有不言亡津液而大便難者, 亦皆論太陽邪入陽明之故, 彙合而成太陽陽明篇也. 若但以麻子仁丸一症爲脾約, 豈能盡合仲景通篇立名之義乎.”

40) 萬全, 傷寒摘錦(萬密齋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63. “如太陽經病不傳陽明經, 卽入陽明胃腑者, 此太陽陽明也. 證治見下.”

가 發汗法과 攻下法과 利小便法으로 인하여 胃腑로 전입된 것으로 太陽陽明이다. 太陽病 3일에 발한시켰는데도 풀리지 않고 찌는 듯이 열이 나는 경우는 胃에 속하니 調胃承氣湯으로 치료한다. 太陽病에 토법이나 공하법이나 발한법을 썼는데 약간 가슴이 답답하고 小便이 잦으며 大便이 因하여 굳은 경우에는 小承氣湯을 써서 消化시키면 낫는다. 이 두 조문은 모두 太陽陽明의 證治이다.”<sup>41)</sup>라고 했는데, 이는 『傷寒論』 181조, 248조, 250조를 인용한 것으로 모두 太陽陽明脾約證의 발단이 공통적으로 太陽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錢潢은 “이로써 太陽陽明篇 머리 부분에 곧 太陽이 陽明으로 들어가는 文章을 두어 말하기를, 太陽病에 땀을 내거나 攻下시키거나 利小便시키면 津液이 亡失되어 胃속이 乾燥해져 因하여 陽明으로 轉屬되어 大便을 보지 못하게 되고 속이 실해져 大便을 보기가 어려운 것을 陽明病이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脈이 陽부위가 微弱하고 땀이 많이 나는 것은 太過한 것이다. 陽脈이 實한데 발한시켜서 땀이 많이 나온 경우도 역시 太過이다. 太過하면 陽이 안에서 끊어지고 津액이 없어서 大便이 이로 인하여 굳어진 것이다. 또한 말하기를 太陽病에 만약 吐하거나 攻下시키거나 汗을 내면 약간 가슴이 답답하고 小便을 자주 보며 大便이 이로 인하여 단단해진 사람에게는 小承氣湯을 주어 消化시키면 낫는다. 또한 太陽病에 寸脈은 緩하고, 關脈은 浮하며, 尺脈은 弱하여 공하시키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惡寒하지 않고 渴症이 나면 陽明으로 전속한 것이다. 小便을 자주 보는 사람은 大便이 반드시 굳을 것인데, 10일 동안 大便을 보지 않아도 괴로워하는 바가 없다. 또한 潮熱이 아니면 아직 承氣湯을 줄 수 없다. 만약 배가 심히 그득하여 通하지 않는 사람은 小承氣湯을 주어서 胃氣를 조금 消化시켜 주고 과도하게 설사시켜서는 안 된다. 무릇 이

모든 證은 모두 津액을 잃어버려 大便을 보기가 어려우며 큰 實熱이 없는 脾約證이다. 이른바 大便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大便을 안 보는 것은 아니다. 大體로 大便을 내보내고자 하나 단단하고 껌끄러워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밖에도 비록 津액을 잃어버려 大便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를 말하지는 않았으나 또한 모두 太陽의 邪氣가 陽明에 들어간 까닭을 論하여 모으고 합하여 太陽陽明篇을 이룬 것이다. 만약 단지 마자인환 하나의 症만을 脾約으로 삼는다면 어찌 能히 仲景이 篇을 통틀어 이름을 세운 뜻을 다하고 합치시킬 수가 있겠는가?”<sup>42)</sup>라고 했는데, 이는 『傷寒論』 181조, 245조, 250조, 244조, 208조를 인용한 것으로 모두 太陽陽明脾約證의 발단이 공통적으로 太陽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247조에 나오는 ‘跌陽脈脾約證’은 그 출발점이 ‘太陽陽明脾約證’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成無己는 247조의 ‘跌陽脈脾約證’의 註解에서 ‘胃強脾弱’하다고 평상시 素因을 중시했고, 喻嘉言과 張璐는 ‘脾土過燥’<sup>43)</sup>하다고 했으며, 程應旆는 ‘火盛水虧’<sup>44)</sup>하다고 했고, 尤在涇은 ‘胃陽素盛, 脾陰不

41) 萬全. 傷寒摘錄(萬密齋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63. “問曰, 何緣得陽明病. 答曰, 太陽病發汗, 若下, 若利小便, 此亡津液, 胃中乾燥, 因轉屬陽明. 不更衣, 內實, 大便難者, 此名陽明也. 此太陽之邪, 因汗下利小便, 轉入胃腑, 太陽陽明也. 太陽病三日, 發汗不解, 蒸蒸發熱者, 屬胃也, 調胃承氣湯主之. 太陽病, 若吐若下若發汗, 微煩, 小便數, 大便因硬者, 與小承氣湯和之愈. 此二條皆太陽陽明證治也.”

42) 錢潢.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987 子部·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p.19. “是以太陽陽明篇首, 即有太陽入陽明之文曰, 太陽病, 發汗, 若下, 若利小便, 此亡津液, 胃中乾燥, 因轉屬陽明, 不更衣內實大便難者, 此名陽明病也. 又云脈陽微而汗出多者爲太過. 陽脈實而發其汗, 汗出多者亦爲太過. 太過爲陽絕於裏, 亡津液, 大便因硬也. 又云, 太陽病, 若吐若下若發汗, 微煩, 小便數, 大便因硬者, 與小承氣湯和之愈. 又太陽病, 寸緩關浮尺弱, 其不下者, 病患不惡寒而渴者, 此轉屬陽明也. 小便數者, 大便必硬, 不更衣十日, 無所苦也. 又云其熱不潮者, 未可與承氣湯, 若腹大滿不通者, 可與小承氣湯微和胃氣, 勿令大泄下. 凡此諸證, 皆亡津液而大便難, 無大實熱之脾約證也. 所謂大便難, 非不大便也. 蓋欲出而堅澀不得出也, 其他雖有不言亡津液而大便難者, 亦皆論太陽邪入陽明之故, 彙合而成太陽陽明篇也. 若但以麻仁丸一症爲脾約, 豈能盡合仲景通篇立名之義乎.”

43) 張璐. 傷寒續論(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3. “仲景言胃強, 原未言脾弱, 況其所謂胃強, 正是因脾之強而強, 蓋約者, 省約也. 脾氣過強, 將三五日胃中所受之穀, 省約爲一二彈丸而出, 全是脾土過燥, 至令胃中之津液日漸乾枯所以大便爲難也.”

44) 程應旆. 傷寒論後條辨(續修四庫全書 986 子部·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432. “至于脾約家則跌陽脈浮而濡, 其常也. 浮則胃氣強, 濡則小便數, 火盛水虧, 由二脈相搏而致大便難之證, 此之謂約. 麻仁丸, 潤燥通幽爲處治則一遇傷寒其不能恣行大承氣可知矣. 所以然者, 以其爲太陽陽

布<sup>45)</sup>하다고 했는데, 이는 ‘趺陽脈脾約證’의 病證이 평상시 脾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논한 것으로 결국 ‘趺陽脈脾約證’의 病證은 그 발단이 臟腑論적인 素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은 ‘大便則硬’이 ‘大便則堅’으로만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같은 채로 『金匱要略·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에도 나온다<sup>46)</sup>. 이로 볼 때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은 病의 발단이 外感風寒이 아니라 臟腑論적인 素因을 어느 정도 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179조와 247조를 다른 개념의 脾約證으로 생각한 成無己와 萬密齋 같은 註家들은 太陽陽明脾約證의 발단을 모두 太陽病으로 보았으나, 成無己는 趺陽脈脾約證을 ‘胃強脾弱’이라는 病機로 설명하여 臟腑論적인 소인을 언급한 반면 萬密齋는 臟腑論적인 소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차이가 있었다. 179조와 247조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 喻嘉言, 張璐, 程應旆, 尤在涇 등은 太陽陽明脾約證은 비록 太陽病에서 병이 시작되지만 그 근원을 추궁해 보면 평상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臟腑論적인 소인이 外感風寒에 비하여 더 근본적인 원인임을 밝힌 주가들이다. 한편 179조와 247조를 같은 개념의 脾約證으로 생각한 張錫駒와 陳修園은 喻嘉言, 張璐, 尤在涇 등과 같은 註家들처럼 臟腑論적인 소인을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47조의 脾約證도 太陽病에서 병이 시작된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이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의 내용을 포함하는 포함관계에 있다고 본 錢潢은 太陽陽明脾約證과 趺陽脈脾約證의 발단을 모두 太陽病으로 보았다. 이로써 살펴건대, ‘太陽陽明脾約證’은 太陽病에서 병이 비롯되고, ‘趺陽脈脾約證’은 대개 臟腑論적인 소인에서 병이 비롯되나, ‘趺陽脈脾約證’의 발단을 太陽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한 인식한 주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脾約證이 발

明非正陽陽明胃家實者，比則推之”

45) 尤在涇. 傷寒貫珠集(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9. “太陽陽明者，病在太陽，而兼陽明內實，以其人胃陽素盛，脾陰不布，尿小而硬，病成脾約。于是太陽方受邪氣，而陽明已成內實也。”

46)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15. “趺陽脈浮而瀼，浮則胃氣強，瀼則小便數，浮瀼相搏，大便則堅硬，其脾爲約，麻子仁丸主之”

단에서 비록 차이를 보이더라도 脾陰의 부족상태로 小便數하고 大便硬한 大小便失調의 脾約病證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2) 脾約證의 전변

한편 仲景이 ‘太陽陽明’을 脾約이라고 했는데, 脾約證이 발생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註家들마다 견해가 같지 않았다. 太陽病證이 완전히 罷한 뒤에 陽明府證으로 전변된다고 한 註家가 있는가 하면 太陽病證이 아직 罷하지 않은 상태에서 陽明府證이 발생했다고 본 註家가 있었으며 罷했는지 罷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와 罷했거나 罷하지 않은 경우의 수가 모두 존재한다고 본 註家가 있었다. 첫 번째로 太陽病證이 완전히 罷한 뒤에 陽明府證으로 전변된다고 한 주가는 朱肱, 方有執, 吳謙, 萬密齋 등이 있었다. 朱肱<sup>47)</sup>, 吳謙<sup>48)</sup>, 萬密齋<sup>49)</sup>의 脾約 논설에서 太陽病證이 완전히 罷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轉屬陽明’이라는 표현 때문이다. ‘轉屬陽明’과 관련하여 『傷寒論精解』와 『傷寒論集解』에서는 ‘轉屬陽明’을 太陽病이 罷하고 陽明病으로 전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50)</sup>. 또한 方有執은 “太陽陽明은 太陽이 病을 받아 지름길로 胃에 들어가 胃家實을 이룬다.”<sup>51)</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太陽

47) 朱肱 撰.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72. “太陽陽明者，本太陽病，若發汗若下若利小便，此亡津液，胃中乾燥，因轉屬陽明也。”

48) 吳謙 編. 訂正傷寒論注(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20. “腑病則有太陽陽明，謂太陽病，或發汗，或吐，或下，或利小便，亡其津液，胃中乾燥，太陽之邪，乘胃燥而轉屬陽明，致小便利數，大便硬者，所爲脾約是也。”

49) 萬全. 傷寒摘錦(萬密齋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63. “如太陽經病不傳陽明經，卽入陽明胃腑者，此太陽陽明也。證治見下。問曰：何緣得陽明病？答曰：太陽病發汗，若下，若利小便，此亡津液，胃中乾燥，因轉屬陽明。不更衣，內實，大便難者，此名陽明也。此太陽之邪，因汗下利小便，轉入胃腑，太陽陽明也。”

50) 文潸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pp.138-142, pp.379-381, pp.385-387, pp.487-489. 聶惠民, 王慶國, 高飛 編集.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p.302-305, pp.610-612, pp.616-618, pp.720-721. 劉渡舟는 轉屬陽明을 太陽病이 罷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러한 견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류두저우 지음, 정창현, 김혜일 옮김. 劉渡舟傷寒論講義. 파주. 물고기출. 2014. p.419.

病證이 이미罷한 뒤에胃腑로 들어갔다고 본 것이다. 두 번째로太陽病證이 아직罷하지 않은 상태에서陽明府證이 발생했다고 본註家は喻嘉言, 張璐, 張錫駒, 陳修園, 尤在涇 등이 있었다. 喻嘉言은 “평상시脾約의 증후가 있던 사람이風寒을 감수하면邪氣가 아직胃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胃는 이미 먼저實해진다.”<sup>52)</sup>고 하였고, 張璐는 “邪熱이太陽에 있을 때大便即難하다.”<sup>53)</sup>고 하였으며, 張錫駒와 陳修園은 모두 “太陽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太陽의標熱과陽明의燥熱이 습하여太陰脾土 가운데에서 합쳐진다.”<sup>54)</sup><sup>55)</sup>라고 했다. 세 번째로罷했는지罷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註家가 있었다. 朱丹溪는 “그 비롯되는 바를 추구해보면 오래된 병이나 크게攻下하거나 크게땀을 낸 후에陰血이 말라內火가 불타오르고 열이元氣를 상하게 하며 또脾를傷하여 이證을 이룬다.”<sup>56)</sup>라고 하였고, 程應旆는 “脾約은小便數하고大便難하며,腸胃가 평소에燥氣를 올라탄 것이다. …중략…세가지는 모두陽燥를 이루는데, 무릇陽盛은陰이 반드시虛한 것이요, 陰虛는陽이 반드시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병이三陽에 있다. 만약토법을 쓰거나공하법을 쓰거나 발한법을 쓰면 다른 곳에서 들어가 곧

사기가 밖으로부터 굴러서壞病이 되고, 나에게 있는 즉 사기가 안으로부터 굴러서府病이 된다.燥하면燥를 부른다.”<sup>57)</sup>라고 했고, 徐靈胎는 “跌陽脈이浮하고濇한데, 浮하면胃氣가 강한 것으로陽盛이요, 濇하면小便數하여陰이不足해진다. 浮濇이相搏하면大便은 보기가 어려워지고脾는 약속되는데 이것이 곧論 중에서 말한 바太陽陽明이 이것이다라는 것이다. 麻仁丸으로 다스린다. 太陽이 바로陽明으로 전해지고, 다시再傳하지 않으므로緩法으로 다스릴 수 있다.”<sup>58)</sup>라고 했는데 이들의 논설 속에서는太陽病證이罷했는지罷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네 번째로錢潢은 “太陽陽明은脾約이다. 太陽陽明은 말하자면病이太陽에 있는데, 中風傷寒을 막론하고誤治하고失治하여陽明으로 전해져 들어갔거나, 혹은 이미陽明으로 전해졌는데太陽證이 아직罷하지 않았거나, 혹은發汗시켰거나攻下시켰거나利小便시켜서津液이 망실되어胃中이 건조해져大便難하게 된 것이脾約이다.”<sup>59)</sup>라고 했는데 이는太陽病證이罷한 경우도 있고罷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나타낸다. 太陽病證이罷했는지罷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太陽陽明과太陽陽明并病 개념과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만약에太陽病證이 완전히罷한 뒤에陽明府證으로의傳變이 일어난다면太陽病證과陽明病證이 맞물리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并病이라고 할 수 없고, 太陽病證이罷하지 않은 상태에서陽明病

51) 方有執. 傷寒論條辨(欽定四庫全書 4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57. “太陽陽明者, 謂太陽受病徑入胃而成胃實也.”  
52) 喻嘉言. 尚論篇(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8. “脾約一症, 乃是未病外感之先, 其人素慣脾約, 三五日一次大便者, 乃至感受風寒, 即邪未入胃, 而胃已先實, 所以邪至陽明, 不患胃之不實, 但患無津液以奉其邪, 立至枯槁耳.”  
53) 張璐. 傷寒雜論(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79. “脾約者, 其人津液素槁, 邪熱在太陽時, 大便即難是也.”  
54) 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子部 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238. “本太陽病不解, 太陽之標熱, 合陽明之燥熱, 併于太陰脾土之中, 脾爲孤藏而主津液, 今兩陽相鑠, 陰液消亡, 不能灌溉, 困守而窮約也. 所謂太陽陽明者是也.”  
55) 陳修園. 傷寒論淺注(陳修園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423. “本太陽不解, 太陽之標熱, 合陽明之燥熱, 并于太陰脾土之中, 脾之津液爲其所燻而窮約, 所謂脾約是也.”  
56) 朱丹溪. 格致餘論(欽定四庫全書 14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659. “原其所由, 久病天下大汗之後, 陰血枯槁, 內火燔灼, 熱傷元氣, 又傷於脾而成此證.”

57) 程應旆. 傷寒論後條辨(續修四庫全書 986 子部 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416. “脾約者, 小便數而大便難, 腸胃素乘燥氣也. …중략…三者皆成陽燥, 凡陽盛者, 陰必虛, 陰虛者, 陽必奏, 所以病在三陽, 若吐若下若發汗, 在他入則邪從外轉而爲壞病, 在我則邪從內轉而爲府病, 燥則召燥也.”  
58) 徐靈胎. 傷寒類方(徐靈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8. “跌陽脈浮而濇, 浮則胃氣強, 陽盛, 濇則小便數, 陰不足, 浮濇相搏, 大便則難, 其脾爲約. 此即論中所云: 太陽陽明者, 脾約是也, 麻仁丸主之. 太陽正傳陽明, 不復再傳, 故可以緩法治之.”  
59) 錢潢. 重編張仲景傷寒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987 子部 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13. “太陽陽明者, 脾約是也. 太陽陽明者, 言病在太陽, 無論中風傷寒, 因誤治失治而傳入陽明, 或已傳陽明而太陽證猶未罷者, 若發汗若下若利小便, 亡津液而胃中乾燥, 大便難者, 遂爲脾約也.”

證이 발생하면 太陽陽明并病이라고 할 수 있다. 179조와 247조를 다른 개념의 脾約證으로 생각한 成無己와 萬密齋 등은 太陽陽明脾約證을 太陽病證이罷한 뒤에 陽明脾約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79조와 247조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 喻嘉言, 張璐, 尤在涇 등은 太陽陽明脾約證은 비록 太陽病에서 병이 시작되지만 그 근원을 추궁해 보면 평상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臟腑論적인 소인이 外感風寒에 비하여 더 근본적인 원인을 밝혔다. 179조와 247조를 같은 개념의 脾約證으로 생각한 註家들 중에서 張錫駒와 陳修園은 太陽病이 아직 罷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의 標熱과 양명의 燥熱이 太陰脾土에서 합쳐지는 것으로 보았다. 179조와 247조를 같은 개념의 脾約證으로 생각한 註家들 중에서 程應旆와 徐靈胎 등의 논설속에서는 太陽病이 과했는지 과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고, 久病 혹은 大下나 大汗후에 脾約證이 발생한다고 본 朱丹溪의 논설속에서도 太陽病이 과했는지 과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 한편 179조의 조문이 247조의 내용을 포함하는 포함관계에 있다고 본 錢潢은 太陽陽明脾約證으로 예시한 조문들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태양병이 罷한 것이었으나, 太陽陽明脾約證이 태양병이 罷한 경우도 있고 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 Ⅲ. 考 察

지금까지 『傷寒論』 ‘辨陽明病脈證并治’의 冒頭조문인 179조에서 張仲景이 陽明을 太陽陽明, 正陽陽明, 少陽陽明으로 나눈 뒤, 太陽陽明을 ‘脾約’이라고 한 것과 247조에서 趺陽脈을 云云하며 ‘其脾爲約’하다고 한 것이 같은 脾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과정으로 脾約의 개념, 『傷寒論』 179조와 247조 脾約 관련 내용의 비교, 脾約證의 발단과 전변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179조에서는 太陽陽明이 脾約이라고만 명명하고, 脾約의 구체적인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나, 247조에서는 脾胃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趺陽脈 云云하면서 ‘其脾爲約’이 小便數하고 大便硬한 증후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179조

의 ‘脾約’과 247조의 ‘其脾爲約’이 만약 同等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脾約의 개념은 陽明病의 일종으로, 진액상태의 異常으로 나타나는 大小便失調 症狀일 것이라고 脾約의 개념을 추정하였다.

뒤이어 179조와 247조 조문 각각의 내용을 成無己의 註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은 太陽病으로부터 그 病證이 시작되고, 太陽病證이 罷한 후에 陽明病證으로 傳變하여 ‘太陽陽明脾約證’의 증후가 나타난다는 면에서 247조의 ‘趺陽脈脾約證’과 같지 않고, ‘趺陽脈脾約證’에서 나타나는 小便數은 陽明病의 증후로 그 發端이 太陽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과 같지 않으며, 成無己가 179조의 脾約을 ‘太陽陽明脾約病’이라고 칭하고, 247조에서는 ‘其脾爲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 ‘太陽陽明脾約’이라고 하지 않고 ‘胃強脾弱’이라는 病機로 247조 조문을 註解한 것으로 보았을 때 두 조문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成無己의 註解에 나타난 小承氣湯 處方과 麻子仁丸 處方の 비교를 통해서도 179조와 247조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麻子仁丸의 處方 구성을 보면 小承氣湯에 들어가는 大黃, 厚朴, 枳實 외에 麻子仁, 杏仁, 芍藥, 白蜜이 들어가는데, 麻子仁, 杏仁, 白蜜은 潤燥시키고, 芍藥은 陰液을 더해 주어 脾約의 約束된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小承氣湯의 瀉熱通便하는 處方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었다.

脾約과 관련한 주요 『傷寒論』 註家들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 179조와 247조의 조문이 동일하다고 생각한 註가들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朱肱, 方有執, 張璐, 程應旆, 張錫駒, 陳修園, 吳謙, 徐靈胎, 尤在涇 등이 있었고, 179조와 247조의 조문이 다르다고 생각한 註가는 萬密齋가 있었으며, 179조가 247조를 포함하는 포함관계에 있다고 본 註家は 錢潢이 있었다.

다음으로 脾約證의 발단과 전변을 살펴보았는데, 179조와 247조를 다른 개념의 脾約證으로 생각한 成無己와 萬密齋 같은 註家들은 太陽陽明脾約證의 발단을 모두 太陽病으로 보았으나, 成無己는 趺陽脈脾約證을 ‘胃強脾弱’이라는 病機로 설명하여 臟腑

論적인 소인을 언급한 반면 萬密齋는 臟腑論적인 소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차이가 있었다. 179조와 247조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 喻嘉言, 張璐, 程應旆, 尤在涇 등은 太陽陽明脾約證은 비록 太陽病에서 병이 시작되지만 그 근원을 추궁해 보면 평상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臟腑論적인 소인이 外感風寒에 비하여 더 근본적인 원인임을 밝힌 주가들이다. 한편 179조와 247조를 같은 개념의 脾約證으로 생각한 張錫駒와 陳修園은 喻嘉言, 張璐, 尤在涇 등의 註家들처럼 臟腑論적인 소인을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47조의 脾約證도 太陽病에서 병이 시작된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이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의 내용을 포함하는 포함관계에 있다고 본 錢潢은 太陽陽明脾約證과 趺陽脈脾約證의 발단을 모두 太陽病으로 보았다. 이로써 살펴건대, ‘太陽陽明脾約證’은 太陽病에서 병이 비롯되고, ‘趺陽脈脾約證’은 대개 臟腑論적인 소인에서 병이 비롯되나, ‘趺陽脈脾約證’의 발단을 太陽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한 인식한 주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脾約證이 발단에서 비록 차이를 보이더라도 脾陰의 부족상태로 小便數하고 大便硬한 大小便失調의 脾約病證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脾約證의 전변을 살펴보았는데, 179조와 247조를 다른 개념의 脾約證으로 생각한 成無己와 萬密齋 같은 註家들은 太陽陽明脾約證을 太陽病證이 罷한 뒤에 陽明腑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79조와 247조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 喻嘉言, 張璐, 尤在涇 등은 太陽陽明脾約證은 비록 太陽病에서 병이 시작되지만 그 근원을 추궁해 보면 평상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臟腑論적인 소인이 外感風寒에 비하여 더 근본적인 원인임을 밝힌 주가들이다. 179조와 247조를 같은 개념의 脾約證으로 생각한 註家들 중에서 張錫駒와 陳修園은 太陽病이 아직 罷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의 標熱과 양명의 燥熱이 太陰脾土에서 합쳐지는 것으로 보았다. 179조와 247조를 같은 개념의 脾約證으로 생각한 註家들 중에서 程應旆와 徐靈胎 등의 논설 속에서는 太陽病이 과했는지 과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고, 久病 혹은

大下나 大汗 후에 脾約證이 발생한다고 본 朱丹溪의 논설속에서도 太陽病이 과했는지 과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 한편 179조의 조문이 247조의 내용을 포함하는 포함관계에 있다고 본 錢潢은 太陽陽明脾約證이 태양병이 罷한 경우도 있고 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나, 그가 太陽陽明脾約證으로 예시한 조문들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태양병이 罷한 것이었다.

## IV. 結 論

以上에서 脾約과 관련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과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은 太陽病이 들었을 때 汗吐下 三法과 같은 治療法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太陽病이 치료되지 않고 도리어 진액의 亡失만을 초래하여 太陽病證이 罷함과 동시에 陽明府證으로의 傳變이 일어나는 病證이라 할 수 있는데,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은 조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太陽病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과 구별되는 病證이라고 할 수 있다.

2. 成無己의 註解를 바탕으로 179조의 ‘太陽陽明脾約證’에 쓰이는 小承氣湯 處方과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에 쓰이는 麻子仁丸 處方を 분석 비교해본 결과, 麻子仁丸 處方은 小承氣湯 處方に 麻子仁·杏仁·芍藥 등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약물이 더 추가되었으므로 處方の 구성을 통해 ‘太陽陽明脾約證’과 ‘趺陽脈脾約證’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3. 成無己가 179조와 247조를 다르다고 한 것은 脾約證이라는 病證의 발단이 外感으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고, 內傷雜病素因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최초로 부각시켰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4. 成無己의 의견과 달리 179조와 247조의 조문이 동일하다고 생각한 주가들이 많았고, 成無己의 의견과 비슷하게 179조와 247조를 다르다고 생각한 주가들은 비록 소수이나, 脾約證이 麻子仁丸 처방으로 다스리는 ‘趺陽脈脾約證’외에도 病證의 발단이 太陽病으로부터 직접 시작되는 ‘太陽陽明脾約證’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5. 脾約證의 발단이 太陽病에 있는 것보다 평소 臟腑論의 素因에 있다고 본 註家로서, 喻嘉言과 張璐는 ‘脾土過燥’하다 하였으며 程應旂는 ‘火盛水虧’하다고 하였고 尤在涇은 ‘胃陽素盛, 脾陰不布’하다 하였으며, 成無己도 247조의 ‘趺陽脈脾約證’에 대해서는 ‘胃強脾弱’하다고 설명하였다.

6. 脾約證의 전변에서 太陽病證이 罷했는지 罷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太陽病證이 罷했다고 본 註家, 罷하지 않았다고 본 註家, 罷했는지 罷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한 註家, 罷했거나 罷하지 않은 경우의 수가 모두 존재한다고 본 註家가 있었는데, 太陽陽明脾約證’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成無己와 萬密齋 등은 太陽病證이 罷한 뒤에 陽明腑證이 발생하는 것을 太陽陽明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太陽病證과 陽明病證이 맞물리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太陽陽明并病과 구별되었고, 喻嘉言, 張璐, 尤在涇 등은 발병의 素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風寒外邪를 감수하게 되면 太陽病證이 완전히 罷하지 않은 상태에서 陽明府證이 발생하는 것을 太陽陽明으로 여겼는데, 이는 太陽病證과 陽明病證이 맞물려있는 太陽陽明并病상태라고 할 수 있다.

## References

1. Compiled by Li SB. Shanghanlunbanbendaquan. Beijing. Xueyuanchubanshe. 2001. p.178.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78.
2. Compiled by Moon JJ et al. Interpretation of Shanghanlun.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 1996. p.104, 138, 247, 375, 487, 492, 493, 495. pp.138-142, 379-381, 385-387, 487-489.  
文濬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社. 1996. p.104, 138, 247, 375, 487, 492, 493, 495. pp.138-142, 379-381, 385-387, 487-489.
3. Cheng WJ. Zhujieshanghanlun.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2005. p.103, 113.  
成無己. 注解傷寒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03, 113.
4. Compiled by He Ren. Jinguiaoluejiaozhu. Beijing. Renminweishengchubanshe. 1990. p.115.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15.
5. Yu JY. Shanglunpian.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1999. p.64, 67. pp.67-68.  
喻嘉言. 尚論篇(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4, 67. pp.67-68.
6. Cheng WJ. Shanghanminglilun.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2005. p.107, 191.  
成無己. 傷寒明理論(成無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07, 191.
7. Zhu Gong. Zengzhuleizhenghuorensu. Seoul. Namsandang. 1987. p.72, 112.  
朱肱 撰.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72, 112.
8. Fang YZ. Shanghanluntiaobian. Seoul. Daeseongmunhwasa. 1995. p.57.  
方有執. 傷寒論條辨(欽定四庫全書 43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57.
9. Zhang Lu. Shanghanzuanlun.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1999. p.579, 583.  
張璐. 傷寒續論(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79, 583.
10. Cheng YM. Shanghanlunhoutiaobian. Shanghai. Shanghaiujichubanshe. 2002. p.416, 432.  
程應旂. 傷寒論後條辨(續修四庫全書 986 子部·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416, 432.
11. Zhang XJ. Shanghanlunzhijie. Shanghai. Shanghaiujichubanshe. 2002. p.238,

251.  
張錫駒. 傷寒論直解(續修四庫全書 987 子部·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238, 251.
12. Chen XY. Shanghanlunqianzhu.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2001. p.423, 434.  
陳修園. 傷寒論淺注(陳修園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423, 434.
13. Wu Qian. Dingzhengshanghanlunzhu. Beijing. Renminweishengchubanshe. 1982. p.120, 132.  
吳謙 編. 訂正傷寒論注(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20, 132.
14. Xu LT. Shanghanleifang.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1999. p.188.  
徐靈胎. 傷寒類方(徐靈胎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8.
15. You ZJ. Shanghanguanzhuji.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1999. p.49, 61.  
尤在涇. 傷寒貫珠集(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9, 61.
16. Wan Quan. Shanghanzhaijin.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1999. p.263, 269.  
萬全. 傷寒摘錦(萬密齋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63, 269.
17. Qian Huang. Chongbianzhangzhongjingshanghanlunzheng zhifamingsuyuanji. Shanghai. Shanghaigujichubanshe. 2002. p.19. pp.13-14.  
錢潢. 重編張仲景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續修四庫全書 987 子部·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19. pp.13-14.
18. Compiled by Nie HM, Wang QG, Gao Fei. Shanghanlunjijie. Beijing. Xueyuanchubanshe. 2001. pp.302-305, 610-612, 616-618, 720-721.  
聶惠民, 王慶國, 高飛 編集.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p.302-305, 610-612, 616-618, 720-721.
19. Written by Liu DZ, Translated by Jeong CH and Kim HI. Liuduzhoushanghanlunjiangyi. Paju. Fishwood. 2014. p.419.  
류두저우 지음, 정창현, 김혜일 옮김. 劉渡舟傷寒論講義. 파주. 물고기숲. 2014. p.419.
20. Zhu DX. Gezhiyulun. Seoul. Daeseongmunhwasa. 1995. p.659.  
朱丹溪. 格致餘論(欽定四庫全書 14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659.
21. Liu LJ. Analysis on the splenic constipation and Fructus Cannabis Pill syndrome and treatment. Xiaixhongyixueyuanxuebao. 2011. 34(2). pp.69-70.  
劉麗軍. 脾約與麻子仁丸證治辨析. 陝西中醫學院學報. 2011. 34(2). pp.69-70.
22. Xiao XR. Splenic constipation is not Fructus Cannabis Pill syndrome. Henanzhongyi. 2009. 29(11). pp.1044-1045.  
肖相如. 脾約不是麻子仁丸證. 河南中醫. 2009. 29(11). pp.1044-1045.